

영광군, 스포츠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효자역할 '톡톡'

4월부터 월 1회 이상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 개최 강종만 군수 "올해 각종 스포츠대회 내실 있는 운영"

영광군은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스포츠마케팅에 한창이다. 동계 스토브리그,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2024 전남체전 대비 프레대회 등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한발 앞선 행정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1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축구, 검도, 농구 등 스토브리그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스토브리그는 전국 초·중·고등부 축구 50팀 1,225명, 전국 중·고등부 검도대회 39팀, 650명, 전국 고등·대학 농구 전지훈련 26팀, 350명 등 총 115개 팀 2,225명 규모이다.

리그 기간 동안 학부모 및 관계자 포함 연인원 4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경제 효과만 40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리그를 성황리에 마치고 잠시 재정비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8일부터 2일간 일정의 제9회 현정화 배 탁구 대회를 시작으로 4월부터는 전국 규모의 대회 13개를 포함하여 32개의 도 규모 이상의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 규모 대회는 지난 3월 9일 전국소년체전 축구 전남예선을 시작으로 17개 대회를 개최 확정지었다.

군은 그간의 스포츠분야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4 제63회 전남체전 및 제32회 전남 장애인체전 유치에도 성공하였으며 대

회 준비에 한창이다. 양 체전은 2024년 4월 중 1~2주 간격으로 영광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선수단 규모는 전남체전 22개 종목에 20,000명, 장애인체전 21개 종목에 1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전면 차단되어 대회 유치가 어려운 시점에서 눈앞에 닥친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는 한편, 스포츠 시설 확충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왔다. 경기장 보수와 여러 체육시설의 확충 등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스토브리그 등을 개최할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군은 전국 규모 체육대회와 2024년 양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숙박업소 대표자와 간담회를 지난 3월 22일 영광실내수영장 2층 다목적실에서 개최하였다.

간담회를 통해서 대한 숙박업 중앙회 영광



군 지부는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 우선 예약 협조, 부당요금 근절, 숙박시설 환경개선 및 청결한 위생 등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올해 준비 중인

각종 스포츠대회도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해 숙박, 음식, 안전 등에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며, 스포츠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다짐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요리 체험 지도사 양성 교육 개강식 개최 무안 고구마 체험프로그램 강사 배출로 융복합 활로 개척



무안군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명진)은 지난 23일 무안군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하나로 2023년 요리 체험 지도사(강사) 양성 교육 개강식 및 1차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이론 및 실습 과정(전학 포함)으로 구성돼 총 9주간(매주 목요일)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수업계획안 작성, 요리 체험의 다양한 접근 등 교수법을 다룬 이론 교육과 고구마를 활용한 피자, 빵, 타르트 등을 만들어보는 요리 실습과 관련 견학이 진행된다. 이번 과정 수료 후 교육생들은 관내 방과후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지도사(강사)로서 직접 무안 고구마 활용 요리 체험 프로그램 또한 진행해 볼 예정이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이번 교육 수료생들의 지속적 역량 강화로 자립적 성장 기반(조직화)을 구축해 지역 내 무안 고구마를 활용한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사(강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한양대 국제문화대학 프렌드십 협약 체결

MZ세대 시각 관광자원 발굴

목포시가 한양대 국제문화대학과 협약을 맺고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시는 지난 28일 상그리아 호텔에서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문화콘텐츠학과와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렌드십(MOU)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 교류 ▲목포관광·문화 자원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등의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교류를 하게 된다.

한양대 국제문화대학은 협약을 시작으로 3박 4일 동안 목포의 주요 명소부터 숨겨진 스팟 구석구석을 살펴볼게 된다. 특히 MZ세대 시각에서 목포를 탐방하면서 목포만의 관광자원을 확인하게 된다.

목포=기동채본부



또한 오는 30일에는 미식문화갤러리-해관 1897에서 해관의 역사를 확인하고 MZ세대와 함께하는 '목포의 맛'토크쇼와 준비된 음식을 시식해 봄으로써 목포의 미식문화콘텐츠 홍보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양대 국제문화대학은 이번 답사를 통해 목포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방문, 체류까지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시는 이를 적극 수렴·검토해 향후 관광상품 개발 등에 적극 활용에 나갈 방침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수선화 섬 선도 풍경을 담은 펜담채화 작품 전시회 열려

안석준 작가가 그린 선도 풍경 작품 15점 선보여

신안군은 지도읍 선도 수선화 축제장에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석준 펜담채화展 '수선화 피는 마을, 선도'를 선보인다.

'수선화 피는 마을, 선도' 전시는 섬 수선화 축제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축제장 내 수선화 카페 및 쉼터에서 진행된다.

작년에 이어 이번 전시는 2021년부터 2년간

작가가 신안 선도를 방문해 그 풍경을 펜담채화로 그린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특히, 수선화가 피는 봄의 풍경을 담아 작품을 보는 이들은 행복감과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안석준(71세)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는 대학에서는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풍경을 많이 그리면서

우리나라 경치에 어울리는 수목화를 위해 대학원에서는 동양화를 전공했다.

졸업 후 수목화로 작품 활동을 하던 중, 2006년 유럽 여행의 골동품상에서 본 가채관화(목판이나 동판으로 윤곽선을 찍은 후 채색하는 기법)를 보고 펜담채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2012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개인전을 열고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낮보다 빛나는 구림의 밤, 영암을 밝히다

영암군은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을 주제로 왕인박사의 위업을 '빛'으로 표현한 이번 영암왕인축제에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유적지와 구림마을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림사거리~왕인박사유적지로 이어지는 구림길은 노후된 울타리 난간을 교체하고 도로 주변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새단장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빛

꽃 터널 아래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왕인로에 빛의 정원을 조성하여 표구철 작가의 '구름물고기 특별전'을 마련하고, 왕인박사유적지 곳곳에 다양한 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만개한 벚꽃과 어우러진 특별한 풍광이 장관을 이룬다.

야간 명소로 새롭게 태어난 구림의 빛은 18시부터 23시까지 축제장 일원을 밝힌다.

영암=조대호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